

 <b>금융위원회</b>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혁신금융</li> <li>• 포용금융</li> <li>• 신뢰금융</li> </ul>	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19.12.26.(목)	

<b>임 자</b>	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최 치 연(044-200-2190)	<b>담 당 자</b>	김 민 수 사무관 (044-200-2192)
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장 도 환(044-215-7630)		류 정 금 사무관 (044-215-7636)
	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강 원 준(02-2100-7716)		신 현 주 사무관 (02-2100-7719)
	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 창 완(02-2110-3661)		신 동 환 검사/최 초 사무관 (02-2110-3668/02-2110-4244)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정 하 늘(044-203-4880)		박 근 형 사무관 (044-203-4884)
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성 기 철(02-2100-2910)		홍 수 정 사무관 (02-2100-2913)

## 제 목 : 경향신문(12.25일) 「한국 ISD 패소는 미국 책임」 제하 칼럼 관련

- 경향신문은 「한국 ISD 패소는 미국 책임」 제하의 칼럼에서,  
“이 문제가 계약 취소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검토한 한국  
문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. 한국이 문서를 제출하지  
않자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 
꼬집었다. 내 짐작에는 한국이 제출하지 못한 검토 문서에는  
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염려가 적혀 있을 것이다.”라고 보도  
하였습니다.
  
- 정부는 다야니 ISD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 
전부 제출하였으며, 이와 관련 2018년 7월 26일자 금융위원회  
보도해명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<b>OPEN</b>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출처표시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<b>prfsc@korea.kr</b>	 <small>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</small>
--	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